

가나안 땅 입성 준비

신명기 8:11-20

김요셉 목사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각인되고 성취되는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을 하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자녀, 모든 문제 끝. 여러분들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린다. 어제 밤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감사하고 행복했다.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말씀에 앞서 오늘은 RTS주일이다. 전 세계의 재앙은 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운동하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RTS는 생명운동, 전도운동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이다. 많은 전도자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전도현장을 보고 말씀을 확신하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고 있다. 오늘은 RTS주일로 섬기게 되어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안 땅 입성 준비'이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땅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가나안 땅은 멀게는 천국, 가까이는 가정, 가문복음화,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복음화 되게 하여주옵소서. 후대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의 후대가 갑자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제사가 없어지고 가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답을 해 주어야 하는가. 몇 년 전에, 청년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청년들이, 당대에 세계복음화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그 때는 나도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되면 됐지, 가정, 가문복음화 하면 됐지.' 하고 별 다른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확신과 미래, 생명운동 할 이유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겠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겠다.

1. 신명기 8장 11절이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이다'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각인해야 되겠는가. 여호와의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여호와의 기억해야 하는가. 내 문제를 위해서 여호와의 기억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 교육, 문화의 질을 높여주는 여호와의 찾으려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찾으면 된다. 출애굽기 3장 17절이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였사 하면'

(1)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놓쳐서 떠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물질, 세상 성공, 인정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신분을 막론하고 죄 권세, 사탄의 권세, 재앙, 지옥배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여호와의 기억해야 하는가. 구원

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2)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시들길썹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희생제사, 피제사,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처음 주신 것이 그리스도 언약이다. 400년 동안 중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답의 길을 주셨던 것이 바로 희생제사이다.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여호와의 기억해야 하는가.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여호와의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각인되기를 축원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만 한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많다. 종교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은 먹고 산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 한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3) 출애굽기 3장 12절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지금도 임마누엘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흑암을 꺾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신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고생하고 고통당하며 살아야 한다(16~20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스스로 고생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길을 여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2.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신명기 8장 14절이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언약이다. 불신앙을 버리라는 것이다. 무엇이 불신앙인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 언약을 문설주에 바르고 아무 노력, 조건 없이 출애굽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도, 어떤 노력을 해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때 벗어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이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서게 되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도 우상숭배 하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 않은가.'하면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하는 것이다.

(2)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이다.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다. 출애굽기 16장 3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러 죽게 하는도다' 굶주림 앞에 선 이스라엘, 의식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불신앙하기 딱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는가. 매일 지축하지 않을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아주 풍성하게 주셨다. 불신앙을 버려야겠다.

(3)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호렘산에 올라갔다. 1절에 백성들이 기다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도자를 잃고 두려움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모세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나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는다.

(4)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이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낸 것이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을 보고 불신앙한다. 민수기 14장 2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탐꾼이 '그 곳의 사람들은 아마아마한 거인이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한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하신 것을 보고도, 육신적인 보고를 말한 정탐꾼의 말에 불신앙하는 것이다. 물론 정탐꾼의 말이 맞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다 불신앙해도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400년 종살이를 하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었다. 4대 동안 후대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찾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불신앙을 왜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불신앙 하지 않을 이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보거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불신앙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앙하는 것이다. 응답 많이 받았다고 믿음이 좋은가. 응답을 적게 받았다고 믿음이 안 좋은가.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당연히 불신앙 할 수밖에 없다.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내게 가장 의지되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란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축원드린다.

3.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광야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한다.

(1) 우리의 모든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교회이다. 광야교회의 인생이다. 언약을 확인하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 한다.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걷는데 답을 가지고 있으면 광야가 아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광야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하고 주신 것이 성막이다. 출애굽기 26장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다.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만사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들어 있다.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만사를 담은 항아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답인 강단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생활을 할 때 성막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었다.

(2) 광야교회의 축복은 무엇인가. 세 절기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유월절은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출애굽 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 구원인 것이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감사이다. 수장절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이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세 절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항상 1, 3, 8의 언약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강단 말씀 들을 때 새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찾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강단을 통해서 오직 성령, 권능 받고 증인되는 이 1, 3, 8의 언약을 늘 확인하라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 감격이 흘러나게 된다. 강단을 따라가고, 그 강단을 통해 1, 3, 8언약을 확인하라.

(3)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제사장을 세운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을 위임한다. 그리고 10절에서 37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한다. 제사장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나오는데,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38절에서 39절에는 매일 예배에 대해서 나온다. 영적 지도자, 제사장을 따라가라. 이것이 광야교회의 미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제사장을 왜 따라가야 하는가. 그 제사장,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말씀 안에 예화,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답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각인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첫째, 여호와를 기억하라, 구원을 베푸실 분은 딱 한 분이시다. 둘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고 하는 불신앙을 버려라. 셋째, 광야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매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 매일, 매 시간, 매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가나안 땅에 입성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다. 결론은 각인하라는 것이다. 알았다고 알아서는 안 되는 문제이며, 들었다고 들어서서 안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진도자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1. 우리는 완전 각인되어야 한다. 후대복음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전에 우리가 먼저 완전 각인되어야 한다. 각인되지 않으면 답을 줄 수 없다. 세 가지를 완전 각인하시기를 바란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완전 복음이 각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각인되었던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재앙당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데 유월절 피 바르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또 위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 잘못 각인된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 이용 복음, 성공 복음 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오직의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오직의 복음, 이사야 7장 14절의 오직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의 오직의 복음이 각인되어야 한다.

2. 성막교회이다. 성막교회는 시스템이다. 완전복음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방법은 교회밖에 없다.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교회가 마지막 전초기지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교회이다. 복음으로 완전 각인된 복음시스템. 언제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각인할 수 있는 완전복음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3. 다락방전도운동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는 것이다. 다락방전도운동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말씀운동을 펴는 것이다.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다. 중세시대 때도 교회는 막혔지만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운동 하셨다. 이 일에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최고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린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해주면 된다. 기문복음화 일어났다면 이 세 가지를 말해주면 된다. 완전복음 각인, 완전복음시스템, 현장 말씀운동이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그 현장교회, 현장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한다. 후대에게 이 다락방전도운동을 남겨야 한다. 이사야 59장 21절이다. '여호와께서 이 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완전 복음을 각인하고, 완전복음시스템을 위해서,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는 축복을 다음 세대와 우리 현장에 증거하는 주역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답이 되게 하고 한 주간 성취되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